

## 환율전쟁에서 살아남는 길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원** · 달러 환율 1170원선, 엔 · 달러 환율 115엔선이 무너졌다. 달러 · 유로환율은 1 대 1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 외환당국은 단독 혹은 외국과 공동으로 시장개입에 나서는 등 적정환율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환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환율이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원화처럼 어느 국가의 통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국가의 수출업자는 이전과 동일한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단가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수출단가를 올리면 그 국가의 수출가격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떨어져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미국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최근까지 "강한 달러가 국익에 좋다"라고 자주 언급해 온 것은 외채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느 국가 통화의 강세는 달러화로 환산한 그 나라의 국부(國富)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 1만달러를 넘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8년에 원화 가치 급락으로 6700달러선으로 줄었다. 정책의 치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나 정치권에 있어 환산(translation) 문제도 관심거리다. 무역수지 흑자를 원하는 국가의 통상당국은 대체적으로 자국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기 보다는 과소평가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통화 가치 하락은 국제적 비난의 예봉을 피하면서 수출보조금이나 수입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원 · 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다고 하자.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 1달러당 100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수입업자는 수입 1달러당 100원의 관세를 무는 것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된다.

요즈음같은 원화 가치 상승세는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단하고 수입업자에 물리던 관세를 철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수출업자에게 수출단가를 인상하고 수입업자에게 수입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결국 수출물량 감소, 수입물량 증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 때문에 단가 인상이 어려워 수출업자가 채산성이 악화를 감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환율은 금융 · 자본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즉각적이다. 최근의 달러 가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투자자들이 생

각하면 그들은 달러화 자산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미국의 주가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변동은 일부 국가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국가에는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협조'와 '갈등'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85년 9월 주요 선진 5개국이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의 고평가 시정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은 국제협조의 대표적인 예다. 이 당시 선진국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그 이면에서 이뤄진 일본의 무역흑자 누적을 시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달러화 매각을 단행했다. 한편 얼마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달러화 가치 안정을 위해 협조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갈등의 한 단면이다. 또 일본이 중국에 대해 줄곧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갈등의 예다. 국제통상협상에서 우리가 보조금지급과 관세부과 지속을 고집하기 힘들다.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에 대해 독일 인피니온사가 보조금지비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불공정 무역 소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기업을 보조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원화절상 억제제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시비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외환당국이 환율을 조절하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원화강세를 너무 쉽게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최근 고위 외환당국자가 "원화와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동반절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중국위안화에 대해 원화는 이미 상당히 절상돼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적정의환보유액은 900억달러"라고 누차 언급해 원화강세를 부추긴 결과를 초래한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최근의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뿐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의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측 요인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화와 제3국 통화의 동반강세 구도가 깨지고 원화만이 강세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외환위기후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증권투자 증가, 국가신인도 상승 등에 따른 외화유입 증가가 바로 그 요인이다. 따라서 기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원고 현상이 지속될 것을 각오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외환위기후 원화가치 급락의 혜택을 누려왔다. 기업차원에서는 수출채산성 개선, 국가차원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의 원화절상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부배량처럼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 체질강화를 통해 원고에 따른 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급선무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만들어 환율변동에 일희일비하는 허약한 체질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이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신규수출상품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쇠퇴기 수출상품은 증가일로에 있다는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정부나 기업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기업들은 일본기업들이 1995년 달러당 80엔의 초엔고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마른수건을 더욱 짜는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